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스스로 있는 자'의 간절한 자기소개>의 줄거리 :

정말 간절하신 하나님의 자기소개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의 명단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불러주기를 바라시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이 세상 모든 종교와 모든 다른 신을 다 멸절하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모든 주체를 역시 멸절하는 이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명단 안에 있는 모든 교인은 각자가 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직면하여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간절한 자기소개

(출애굽기 3:13~22)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본문에는 교인들을 향하여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자기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이 반드시, 꼭, 절대로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과 관계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발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기라는 간절함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

다.

본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까요? 앞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양육되는 동안에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 동족 히브리인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교인들이 당신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에 새삼스레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11~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계약을 맺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에는 보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물에 대한 보편적인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 갖는 태도야말로 곧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에게는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까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알았던 신은 종교의 신이었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며 사는 동안에 신을 만들어서 신이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아는 신이란 세상을 향해 갖고 싶은 인간의 바람을 받들어 주고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신은 존대해야 할 종입니다. 잘 타이르고 잘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소원에 협조하고 도와주고 이루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신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얼핏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이 말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아는 신이란 제사를 지내 구슬리고 뇌물을 바쳐 받들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신은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됩니다. 종교의 신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뜻을 따르고 도와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뵙습니다. 정말로 삶의 주인이자 마음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신을 난생처음 만납니다. 제가 가서 만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뜻을 품고 주체가 되어있는 자기를 신이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신을 구슬리고 달래는 것을 신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저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뵙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줄 때 어떤 분이라고 알려야 하겠습니까?’라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주신인 ‘라’는 태양신으로서 모든 사물에 빛을 비추며 생명을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모두 존재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스스로 있지 않고 있게 된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약속의 명단에 직접 등록하신 교인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로 인식하고 관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기에 이제부터 교인들이 마주하는 모든 대상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있게 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관계성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몸으로 만나는 모든 것은 있게 된 것들로서 관계할 것이며,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관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관계의 의미를 가르쳐주십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있는 자와 관계하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있게 된 것들로 알고 관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실 것을 16~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국가 형태를 이루고 선진 문명을 이루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도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있게 된 것임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애굽과 바로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닿을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애굽보다 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는 곧 바로의 존재감보다 더 큰 존재감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를 고양이가 쥐 다루듯이, 바람에 나는 겨를 입김으로 불듯이 다루시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에 바로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무르셔서 녹아내리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최고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로의 상태를 잘 됐다고 여기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여겼던 바로의 존재감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칠 족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같은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통해, 가나안 칠 족속을 어떻게 다루실지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있습니다. ‘너희는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바로의 존재감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이제 너희의 마음에서 최고의 자리는 바로에서 나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너희의 마음을 나의 존재감으로 가득 채워라.’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교인들과 맞닥뜨릴 순간을 앞두시고 자기를 소개하신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유일한 있음임을 의미합니다. 있음을 느끼는 것이 존재감입니다. 어떤 사람의 존재감이 없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내게 너무 미미한 대상이고, 그의 있음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인이란 하나님께서 약속의 명단에 예정하셔서 등록하신 자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있음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는 대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존재들의 있음의 무게를 더 먼저 더 크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을 열 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지팡이 든 80세 노인 모세를 앞세우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있던 존재감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의 말씀과 권세만으로 마치 고양이가 쥐를 다루듯이 혹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로를 취급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시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의 신분으로서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으로 가져야 하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당시의 바로는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 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취급하시고 다루고자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당시의 초강대국인 애굽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나 세상에서 막강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있게 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처럼 못난 자들이 대면하고 직면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가져야 될 자가 누구인지 보아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드러낼 때 너희 마음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이 세상에 있게 된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것들 중에서도 나보다 더 우선시하고 존재감을 크게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쩡하게 있는 산을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의 교훈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은 너무나 크고 무한합니다.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감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부분을 떼어내더라도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산 정도는 티끌처럼 느끼게 할 정도로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태산처럼 느껴지는 과제나 문제나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감 전체의 크기 중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그 존재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삶에서 느끼는 과제나 사람을 문제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감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붙잡더라도 문제로 여겨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에 비하면 산이 옮겨지는 일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떤 일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로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들을 위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십니다. 바로는 그렇다 치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열 가지 재앙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선민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 전체를 교육 재료로 동원하실 정도로 선민들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더한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19~22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금은 패물과 의복과 물품을 갖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애굽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막대한 소유를 갖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은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기에 있게 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방법은 애굽 사람들의 금은 패물과 의복과 물품들을 거저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자기 것이라고 알고 있던 금은 패물과 의복과 물품들을 이제 자기 것이 아님을 알려줄 것이다. 그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갈 때는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것을 거저 내어주는 일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러한 일을 애굽 전체가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 중에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있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약속의 명단에 없는 세상 사람들, 죄와 저주 속에서 살다가 끝나버릴 사람들이 필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있게 하려고 애쓰는 바보 멍청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마음속에 있어야 할 존재는 나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형통도 있어야 하고, 성공도 있어야 하고, 인기도 있어야 하고, 자존심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바꿔 말하자면 바라지 않거나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삶에서 없애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게 하려고 결정하셨다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게 하려고 결정하셨다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없게 하시려는데 있을 수 없으며, 있게 하시려는데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무에서 세상을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나로부터 삶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를 생각할 때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되고, 흘러나오고 있다는 의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출발점이 되면 좋은 것은 있게 하고 나쁜 것은 없애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느라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문제나 과제보다 스스로 있는 자의 무한하신 존재감 중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만 되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터져버릴 정도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일이 바다에 빠지는 일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동원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보면 손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 맞아 살갗이 찢어지고, 창에 배를 찔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의식합니다. 그것만 의식하면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연합하여 계시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계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예수님 따라 자꾸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마음에서 커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중심점이 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흐름의 방향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내가 있게 하고, 없게 하려는 역행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앞서 십자가를 봐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보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어느덧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은 커지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삶은 물이 흐르듯이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흘러가면 됩니다. 내가 있게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없게 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이 없어질까 붙잡을 필요도 없고, 나쁜 것이 생길까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좋은 것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뿐이며, 오직 나쁜 것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애굽과 바로로 상징되는 이 세상 것들의 막강한 존재감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바로 나쁨입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있게 하신 일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없게 하신 것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실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감만을 키우면서 이 세상은 흐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주체가 되어있는 나를 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김에서 오는 덕을 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있게 하려고 할 필요 없고, 없게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게 하시면 없는 것이고, 있게 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일들에 관심을 두고 관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흐름을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흐름에 저항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저것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던 무에서 세상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흐름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게 하려고, 없게 하려고 하는 동안 실패하고 맙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이 있어야만 한다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는 상황에서 고기가 있어야만 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잠깐 갈증이 나게 하시고, 잠깐 고기를 못 먹게 하심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흐름대로 사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갈증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 있게 됨을 알았다면 물을 달라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시며 바로와 애굽을 재료로 써서 스스로 있는 자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내 물을 주시지 않거나 고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없게 하셨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흐름을 받아들인다면 불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없어야 한다고 여기며 살기에 불행해집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존재감을 제로로 놓고 살기 때문에 인생은 힘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존재감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눈으로 보는 어떤 대상보다 커야만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 증거입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게 되든 없게 되든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좋음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 유일한 있음이고 유일한 좋음입니다. 있게 된 것들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주었다가는 내 마음도 끊임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있게 하신 것들에 마음을 두고, 없게 하신 것들을 아쉬워하는 동안 인생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됩니다. 오직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마음을 있게 된 것들에 둔다면 영생은 없습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고 이미 없어진 것들입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권력도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마음을 둘 때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마음이 없어지고 맙니다. 마음이 천국에 있으려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을 존재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존재감을 먼저 느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게 되지도 않고, 없게 되지도 않고, 영원토록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삶의 현장에서 유지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사실을 대박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대박이 아니라 실제 대박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에 중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